

Sex와 Gender

최 형 기 · 영동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지난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Sex대신 Gender라는 말을 사용하자고 결의했다 한다. Sex는 타고난 생식기에 의한 성이고 Gender는 자라면서 사회, 문화, 주위환경 등에 따라 자신이 나타내는 성 주체성이다.

정상적으로는 남성생식기에서는 남성적인 gender, 여성생식기에선 여성의 gender로 자라는 게 보통이며, 보통 18개월에서부터 3세 사이에 이러한 gender의 주체성이 확립된다. 그러나 유아기에, 생식기가 애매한 소아에서는 이러한 gender 결정이 어려울 때가 있다. 즉 외부 생식기만 가지

고는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잘 정해 주어 야만 정신적 갈등을 면할 수 있다.

성 주체성(Gender role)의 개념은 미국 Johns Hopkins대학의 소아내분비 심리학자인 Money박사가 이러한 소아환자에서의 gender 결정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부터 쓰기 시작해서 지금은 성의 주체성의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으나, 최근엔 여성주의자들이 여권신장의 의미로 gender라는 말을 쓰자고 주장했다.

어느 날 진료실에 아주 곱상하게 잘생긴 미남자형의 23세(디자이너) 환자가 찾아왔다. 머리도 최



신형으로 하여 얼핏 보기엔 예쁜 여자 같은 느낌이 들었다.

환자와 이야기를 해보니, 찾아온 문제인즉 자기의 성문제에 고민이 많다는 것이었다.

우선 외부생식기를 진찰해 보니 음경, 음포는 다 나와 있고 음낭의 고환은 용적이 3cc보다 작아 아주 적은 고환 알맹이였다. 즉 생식기의 발육이 매우 미약한 상태였다. 환자는 군에 입대하려고 신경을 받았으나 이상하다고 재검을 받아보라 해서 정액검사를 해보니 무정자증으로 판명되어 불합격을 받았다고 했다.

홀몬검사를 해보니 남성홀몬인 테스토스테론치가 낮고 성선을 자극하는 뇌하수체 홀몬은 증가되어 있었다. 즉 고환기능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성선자극호르몬만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보편적인 고환기능 부전환자였다.

S군의 염색체검사를 해보니 놀랍게도 47XXY로 나왔다. 정상 남자는 46XY이고 여자는 46XX인 것인데 염색체 하나가 더 많은 것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클라인네 헬터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보통 외모로 나타날 때는 Y염색체가 있는 경우에는 고환이 발육되므로 남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환자들은 선천적인 고환기능부전으로 인한 성욕저하 및 무정자증으로 아기를 가질 수가 없다. 고환에서 남성홀몬을 분비하지 못하므로 평생 남성홀몬의 보충치료를 받아야만 비로소 남성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 남성홀몬치료를 권하니까 의외로 이 환자는, “여성홀몬치료를 받게 해주세요”하는 게 아닌가. 깜짝 놀라 자세히 이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S군은 어려서부터 외부생식기가 남자로 되었으니까 Sex는 남자로 인지되고 이에 따라 남자의 gender로 살아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자기에게 남성이라는 gender가 웬지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계속 느끼며 남모르는 고민을 해왔다고 한다. 같은 또래의 여자 애들과 데이트를 하거나 같이 놀면 도저히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고 친구같이 느끼게 되며 오히려 잘 생긴 남자를 보면 괜히 가슴 두근거리고 흥분됨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이러한 자기의 비밀을 필자에게 털어놓은 S군이 어쩌나 귀엽고 예쁘던지 필자도 완전히

여성으로 착각하게끔 느끼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부모님, 형제들에게도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비밀.

23년간 자기에게 맞지 않는 gender에서 고민해 온 S군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는 행동을 할 수 없어 자기의 gender를 찾아가야겠다고 고백한다. 필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가슴에 찡하게 와 닿는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47XXY에서 비활동성으로 있어야 할 X염색체가 활동성으로 나타나 여성의 gender를 원하는 성전환증 환자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고민, 갈등 및 환자의 gender role의 수정을 위해 우선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권했다. 2명 이상의 이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마지막으로 이 환자의 gender를 결정해 주려 하였다. 그러나 본인의 마음은 이미 여성으로 확실한 것이며 이것은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 같았다. 결국은 gender role을 바꿔주고 성전환수술이 필요한 환자로 느껴졌다. 정신과 의사의 지문과 가족과의 상의 후에 이 일을 결정하려고 한다.

하느님께서 어쩌면 이런 실수를 하셨나...

요즈음 세상은 점점 남자, 여자가 혼동되어 가고 있으니 남성은 남자답게, 여성은 여자답게 자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평소에
다진 건강
평생을
건강하게

○한국건강관리협회○